



기비탄소식

2006년 ● 제 3 호

Builders of Good Citizenship

□ 국제기비탄 국제본부 존 라이니어슨 상근 부총재의 메시지



존 라이니어슨 부총재

한국 키비탄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저와 저의 아내가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여러분께서 친절하고 정중한 대접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국제기비탄 본부에서 일하게 된 후 처음으로 한국본부를 방문한 것은 론 다우던(Ron Dowden) 총재를 모시고 왔을 때였는데 그로부터 벌써 20여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20년 전의 한국과 오늘의 한국을 비교할 때 크게 변한 것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이며 변하지 않은 것 중에서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따뜻한 우정과 친절한 대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한국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1975년에서 약 5년간 저의 부친이 미국 방부의 문관으로 미8군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아마 1978년에서 1979년 사이에 몇 차례 제 가족을 만나러 지금 하이아트 호텔 근처의 남산에 있던 집

한국 키비탄 회원 여러분께

국제기비탄 본부 상근 부총재 존 라이니어슨

에서 머물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5월 13일 저녁에 롯데 호텔에서 열렸던 저의 내외를 위한 환영만찬을 지금도 아름다운 추억의 하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내는 1987년에 한국을 방문한 후 두 번째 방문이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한국 키비탄의 지도자 여러분, 특히 각 클럽의 회장님들을 만나서 환담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다음날 서울랜드에서 개최된 특수어린이 대잔치에 참석해서 장애어린이들이 개그맨의 지시에 따라 함께 환호하고, 넓은 공간에 마련되어 있는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고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어린이들로 하여금 재활의 의지를 다지게 하고, 그 부모들이 보다 밝은 희망을 가지고 장애어린이를 정성껏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한다는 뜻에서 우리 국제기비탄 본부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

는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한국키비탄 여러분은 계속해서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펼쳐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잘 가꾸어서 발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국 본부의 역대 총재단을 비롯해서 임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혼신적인 봉사활동으로 매우 뜻있는 사업을 마련하고 발전시켜 오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국제기비탄의 당면과제는 무엇보다도 우리 회원을 배로 증가시켜 회세를 확장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원 모두는 각자가 회원모집의 책임을 맡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동참할 수 있는 훌륭한 동료를 찾아 회원으로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키비탄 회원 모두의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한국키비탄의 여러분께 전해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 각 클럽 활동

동해클럽

• 봄철산불예방 캠페인 및 자연보호 봉사활동

동해클럽은 지난 4월 9일(일) 동해시 무릉계곡 유원지에서 강릉회원 15명을 포함하여 총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및 자연보호 봉사활동을 하였다.

• 강원자원봉사 릴레이 참여

동해클럽은 지난 8월 11일(금) 동해시 목호동 소재 베다니마을에서 무의탁 노

인 20명을 대상으로 여성회원은 할머니 다섯분께 목욕봉사를, 남자회원은 지하실 예배당 청소를 하였으며, 후원금 30만 원을 전달하였다.

강릉클럽

• 수해지역 복구공사

강릉클럽은 지난 7월 18일(화)부터 22일(토)까지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5리에서 지난 여름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수해로 인하여 들판과 시가지는 물에 잠기어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주민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어 주고자 수해현장에서 키비탄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 모범가정돕기 봉사

강릉클럽은 지난 9월 30일(토) 강릉시 월호평동 361번지에서 2006년 강릉클럽 사업계획에 따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거동이 불편하신 신체장애 독거노인, 생활이 어려운 소년, 소녀 가장과 김순옥 할머니를 비롯한 네 가정을 각각 방문하여 100만원 상당의 쌀과 라면 및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 동해클럽 봄철산불예방 캠페인 및 자연보호 봉사활동 (2006. 4. 9. 무릉계곡 유원지에서)



• 동해클럽 2006 강원자원봉사 릴레이 참여(2006. 8. 11. 동해시 목호동 소재 베다니마을에서)



• 강릉클럽 수해지역 복구 공사(2006. 7. 18~22. 평창군 진부면에서)



• 강릉클럽 모범가정돕기 봉사(2006. 9. 30. 강릉시 월호평동에서)

베푸는 보람과 봉사로 기쁨 찾자

강릉아산클럽

• 강릉 오죽헌 견학

지난 7월 20일 강릉아산클럽에서는 강릉 보육원 원생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회원들과 함께 오죽헌 견학을 다녀왔다.

•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하계 캠페인 실시

강릉아산클럽에서는 지난 7월 24일(월) 경포해수욕장에서 지역 주민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하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범죄피해자 지원 봉사단원인 강릉아산클럽 회원들은 피해자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생활해 나아가도록 격려와 지원을 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캠페인과 더불어 경포해수욕장 환경정화 운동도 하였으며, 장마로 인해 어려움이 많던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여 지역사회에서 봉사함으로써 훌륭한 시민이 되고자 하는 키비탄의 정신을 실천하였다.

• 보육원 원생들에게 보건교육

지난 8월 17일에는 봉사활동의 일환으

로 강릉보육원 원생들에게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이어서 종이접기 등 학습지도와 오락지도를 하였다.

광주 클럽

• 시각장애인 시설에서의 봉사활동

광주클럽 회원들은 지난 8월 19일(토) 오후 4시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에 소재하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맹인선교회 부설 평화의 집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위



• 강릉아산클럽 오죽헌 견학 (2006. 7. 20. 강릉 오죽헌에서)



• 강릉아산클럽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하계 캠페인 (2006. 7. 24. 경포해수욕장에서)



• 강릉아산클럽 청소년 흡연에 대한 교육 (2006. 8. 17. 강릉보육원에서)



• 광주클럽 시각장애인 시설에서의 봉사활동 (2006. 8. 19. 광주 평화의 집에서)

문품과 격려금을 전달 하였다.

춘천 클럽

미을 클럽

• 정신지체 장애인 시설에서의 봉사활동

충주 미을클럽 강호안 회장 외 회원 15명은 지난 6월 3일 (토) 정신지체 장애인 시설인 나눔의 집에서 짐장을 돋는 등 봉사활동을 하였다.

• 의료봉사

춘천클럽은 지난 8월 27일(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춘천 사내면 사무소에서 춘천클럽 회원과 자원봉사자 등 약 45명이 참가한 가운데 평소 진료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주민들 400여 명에게 내과, 외과, 치과, 안과, 지압 및 물리치료, 이·미용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경희고황 클럽

• 의료봉사

경희고황클럽은 지난 9월 16일(토) 회원들이 구리 살롬의 집을 첫 방문하여 장애우의 혈압제기, 당뇨체크 및 건강상담 후 빨래와 텁밭을 가꾸는 일을 도왔으며 또한 작은 후원금도 전달하였다. 앞으로 16명 정도의 회원이 A, B조로 나누어서 월 2회(첫째, 셋째 토요일) 방문하여 건강체크 및 상담을 하며, 일손돕기를 하기



• 춘천클럽 의료봉사 (2006. 8. 27. 춘천 사내면사무소에서)



• 춘천클럽 의료봉사 (2006. 8. 27. 춘천 사내면사무소에서)

로 하였다. 작은 시작이지만 보람있는 봉사로 키비탄 정신을 실천하고자 한다.

고임 클럽

• 장애인들과의 벚꽃 구경

고임클럽은 지난 4월 17일(월) 청주 인근의 장애인시설인 은혜의 집 원생들과 함께 청주 무심천의 벚꽃 나들이를 다녀왔다. 지난 2월 15일에는 은혜의 집에서 원생들의 목욕을 돋는 등 봉사활동을 하였다.



• 경희고황클럽 의료봉사 (2006. 9. 16. 구리 샬롬의 집에서)



• 고임클럽 장애인들과의 벚꽃 구경 (2006. 4. 17. 청주 무심천에서)



• 한양대클럽 정신지체아동시설에서의 하계봉사활동 (2006. 6. 18. 강원 인제 애향원에서)

한양대 클럽

• 정신지체아동시설에서 하계봉사 활동

한양대학교 키비탄은 6월 18일(일)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 있는 인제 애향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는 정신지체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자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로서, 한양대클럽 회원들은 일주 일간의 합숙생활 속에서 많은 이야기와 그들의 고민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장애인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동남보건대 클럽

• 장애아동 미술캠프 참여

동남보건대클럽은 지난 7월 26일(수) 키비탄회원 1, 2학년 10명과 비회원 2명이 수원자체학교에서 열린 장애아동 미술캠프에 참여하였다. 이날 학생들은 판화, 종이접기, 벽화그리기, 염색, 도자기 만들기 등으로 파트를 나누어 교사들을 돋고, 행사가 끝나고 뒷정리까지 하면서 봉사하였다.



• 동남보건대클럽 장애아동 미술캠프 참여 (2006. 7. 26. 수원 자혜학교에서)

키비탄의 신조

- ▶ **나는 키비탄이다.** 인생과 함께 늙고, 무지개처럼 젊고, 세월과 같이 무궁하다.
- ▶ **나의 짐은** 모든 친구를 위하여 뛰며, 인간에 입힌 상처에 대해 슬퍼하며, 진리가 승리할 때마다 기쁨으로 고통을 친다.
- ▶ **나의 손은** 세계를 위하여 일하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한다.
- ▶ **나의 영혼은** 두려움을 모르나, 자신의 부족함은 알고 있다.
- ▶ **나의 귀는** 어린이의 울음소리, 평화와 선도, 인류 발전과 화합을 기구하는 세상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는다.
- ▶ **나의 희망은** 키비탄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세상을 이루는 것이다.
- ▶ **나의 눈은** 키비탄 정신으로 함께 봉사할 동료를 찾는다.
- ▶ **나의 표어는** “훌륭한 시민정신을 기르자”는 것이다.
- ▶ **나의 입은** 일상 임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모든 나라말로 기도를 드린다.
- ▶ **나의 신념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나도 남을 대접한다는 것이다.
- ▶ **나의 마음은**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고, 국기에 대해 경의를 갖도록 스스로를 일깨운다.
- ▶ **나의 서약은** 이 신념을 실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더욱 훌륭하고 고상한 시민정신을 함양하자는 것이다.

『키비탄 소식』 2006
제 3 호

• 발행인 : 김 성 규
• 편집인 : 신 정 순
• 발행일 : 2006년 10월 1일

• 발행처 : 국제키비탄 한국본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의료원내
(직통) TEL. 364-7804, 2228-3920
<http://www.civitankorea.com>